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자신과 자신을, 남과 자신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과 비교하는 사이 남들보다 좋아하는 일을 자신이 못 한다는 것 또한 원동력이 된다면 분명 자신의 발전 자체에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타인 자체를 대하는 태도와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함께 남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자신 이외의 사람을 깊이 있게 판단하며 바라보지 않고 그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중심적 사고는 동시에 사람을 사귀는 관계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의 프레임으로 첫 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을 비교하는 분류법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넘어야하는 자신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와 함께 정신적 성장을 통해서 타인을 올바르게 생각해주고 자신이 판단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에 의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행복은 자신에게서 오는 성장과 성찰, 자기애에서 오는 기쁨과 함께 타인과 함께하는 행복은 소통을 통해 오는 자시의 생각에 대한 공감과 해소에서 오는 행복이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자신의 행복에서, 기쁨에서 빼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생이 사회에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이라면 남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소통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